

이효석의 <山>과 <들>에 나타난 자연의 성격

조 명 기*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이중적 성격의 의미 |
| II. 자연의 이중적 성격 | 1. 前史로서의 <수탉>, <獨白> |
| 1. 단절의 공간-자발적 선택의 공간 | 2. 자연의 위치와 의미 |
| 2. 연결의 공간-추방의 공간 | IV. 결론 |

I. 서론

이효석의 변화무쌍한 작품 경향을 통시적으로 설명해내려는 노력이든, 특정 경향의 소설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 작업이든, 이효석 소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메밀꽃 필 무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소설을 함량미달로 평가한다. 초기의 맑시즘은 시대사조에 영합하고 자신을 위장하기 위한 도구¹⁾에 불과했으며 그는 소부르주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²⁾는 견해, 그리고 그의 후기 작품

* 中國 遼東大學 客座教授

1) 정명환, 『한국작가의 지성』, 문학과지성사, 1978, 74쪽.

2) 박진숙, 『1930년대 한국동반자문학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33-37쪽.

들은 모더니즘 문학으로 보기에는 모호³⁾할 뿐만 아니라 현실 도피주의 혹은 현실 순응주의로 일관했다는 견해⁴⁾ 등이 그러하다. 이효석 소설에 대한 비판의 일차적 요인은 그의 소설이 경향면에서나 소재면에서 맑시즘, 성, 자연, 서구, 도시, 조선적인 것 등 복잡한 편력상을 보인다는 데 있다. 일관성 없어 보이는 변화 과정을 거의 현실 도피주의라는 용어 하나로 설명해내려 한 것이 기존의 연구였다.

반면, 유진오는 맑시즘의 세례를 받은 초기의 작품들은 이효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 후의 작품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문학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유진오는 이효석의 변신을 “轉身도 轉向도 아니고 本身의 自己에로의 回歸”⁵⁾로 설명한다. 사실 채만식이나 유진오 같은 다른 동반자 작가들에 비해 비교적 재빨리 변신을 시도했던 이효석이기도⁶⁾ 유진오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인회에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하는가 하면 맑시즘에 대한 심증적 동의를 간헐적으로 표명하는 (<薔薇 病들다>, <附錄> 등) 이후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효석이 나름의 방향을 확립했기 때문에 맑시즘의 자장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효석의 작품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급격한 변화를 보

-
- 3)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문학연구』, 일지사, 1988, 81쪽.
 - 4) 이상옥, 『이효석』, 건국대 출판부, 1997, 21쪽; 김우중, 『韓國現代小說史』, 성문각, 1989, 251쪽.
 - 5) 유진오, 『作家 李孝石論』, 『국민문학』 7월호, 1942, 17쪽.
 - 6) 채만식이나 유진오는 카프의 공식적 해체기인 1934년~1935년경에 맑시즘의 포기를 선언한다. 채만식은 <레디메이드 人生>(『신동아』, 1934년 5월~7월), <明日>(『조광』, 1936년 10월~12월), <少妄>(『조광』, 1938년 10월) 등을 통해 유진오는 <金講師와 T教授>(『신동아』, 1935)를 통해 맑시즘의 세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명기, 『지식인의 위상과 현실 대응 전략』, 『현대소설연구』 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조명기, 『1930년대 말 지식인의 현실 적응 양상 연구-채만식의 『少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5집, 한국문학회, 2003. 12; 조명기, 『金講師와 T教授』에 내재된 지식인의 욕망 연구』, 『어문학』 83집, 어문학회, 2004 등을 참고할 것. 그런데 이효석은 이보다 3, 4년 앞선 시기인 <프레류드>(『東光』 28-30, 1931.12-1932.2), <오리온과 林檎>(『三千里』, 1932.3), <豚>(『朝鮮文學』 3, 1933.10), <수탉>(『三千里』, 1933.11), <獨白>(『三千里』, 1933.12) 등에서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며 그 변화를 현실 도피주의라는 가치지향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본고는, 이효석은 나름의 방향을 확립했기에 맑시즘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 아니라 맑시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리라 가정한다. 맑시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이효석 소설이 보여준 많은 변화 중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기에, 초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중기의 작품들은 이효석 소설의 변화 원인과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프레류드>에서 <들>에 이르는 이 작품들의 변화 논리를 추적한다면 이효석 전체 소설의 변화 논리 그리고 변화 양상과 경향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초기작과 후기작의 전환점에 서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는 일련의 작업 중 세 번째로, <山>(『三千里』 69, 1936. 1)과 <들>(『新東亞』 53, 1936. 3)에 주목한다. 이 소설들은 <프레류드>에서부터 <들>에 이르는 작품들 중에서도 시기상 비교적 뒤쪽에 놓을 뿐만 아니라 이효석의 문학적 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 발표된 소설들이다. 이효석은 <豚>, <수탉>, <獨白> 등의 소설에서 이미 성(性)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성과 맑시즘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맑시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한 바 있다. 반면 <山>과 <들>은, 성(性)보다도 자연을 중심적인 요소로 삼으면서도 자연이 맑시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이전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서구, 조선적인 것 등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山>과 <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山>과 <들>에 나타난 자연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은, 성을 부각시켜 맑시즘에서 벗어나려 한 이효석의 지난 노력이 지닌 의미 나아가 이효석 전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될 것이다. 본고는, 전후(前後) 소설의 맥락 속에서 <山>과 <들>에 나타난 자연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 분석과 담론 분석을 병행한다.

Ⅱ. 자연의 이중적 성격

1. 단절의 공간-자발적 선택의 공간

<山>과 <들>의 주인공 중실과 ‘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인간 사회(마을)에서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한 후 산과 들이라는 자연 속으로 들어온 인물들이다.⁷⁾

속에는 맑은 꿀이 차 있었다. 사람은 살라고 마련인 듯싶다. 꿀은 조금으로도 요기가 되었다. 개와 함께 여러 날 양식이 되었다.<山>, 346쪽)

끄스러진 노루 한 마리를 얻은 것이다. 불 테두리를 뚫고 나오지 못한 노루는 산골짜에서 뱅뱅 돌다 결국 불벼락을 맞은 것이다. (중략) 여러날 동안의 흐뭇한 양식이 되었다.<山>, 347쪽)

개울녘 풀밭에서 한 자웅의 개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겁내지 않고 들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꺼리는 법 없이 자웅은 터놓고 마음의 자유를 표현할 뿐이다.<들>, 12쪽)

나는 떨리는 그의 팔을 붙들고 풀밭을 지나 버드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입술은 딸기보다도 더 붉다. 확실히 그는 딸기 이상의 유혹이었다. (중략) 아무리 야취의 습관에 젖었기로 철망 너머 딸기를 딸 때와 일반으로 아무 가책도 반성도 없었던가. 별판서 장난치던 한 자웅의 짐승과 일반이 아닌가.<들>, 17쪽)

그들은 자연은 “내 세상이다”(<들>, 8쪽)고 천명한다. 그들이 자연과 합일될 수 이유는 두 가지다. “해마다 사경을 또박또박 받아본 일 없”(345쪽)는 인간 사회와는 반대로 <山>의 자연은 중실에게 여러 날 양식이 되는 꿀과 산불에 그을린 노루를 제공한다. <들>의 ‘나’ 또한 과수원 옆을 지나다 딸기에 대한 “건강한 식욕”을 느꼈을 때 “가책과 반성으로 모질게 마음을 매질”(16쪽)할 필요도 없이 철망을 넘어 딸기를 따먹는다. 자연은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인간에게 식량(꿀, 노루, 딸기 등)을 제공한다. 또한 <들>은 인간과 동물의 정사를 자유롭게 허락하는 공간이다. 개들이 들판에서 “마음의 자유”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듯, ‘나’와 옥분은 들판에서 아무런 “가책과 반성도” 없이 정사를

7) 장운수, 『兪鎮午와 李孝石 小說에 나타난 現實認識』, 고려대 석사논문, 1982, 60쪽.

나눈다.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정사가 “들 복판에서는 수월한 법”(19쪽)이어서 ‘나’의 친구 문수 또한 풀밭에서 옥분과 정사를 나눈다. ‘나’는 문수의 고백을 들으며 “마술과도 같은 자연의 매력”(23쪽)에 대해 생각한다. 들은 그 특유의 “야취의 성격”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묵인하는”(16쪽) 공간이다.

“식과 색”⁸⁾을 마음껏 제공하는 자연은 인간 사회와 교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단절된 공간, 대립되는 공간이다. 산은 “박종골에서도 오리나 들이 간 마을과 사람과는 인연이 먼 산협”(346쪽)이며, 들을 사랑하는 “식물적 애정”은 “동물적 열정”(9쪽)으로 뒤엎긴 인간 사회에서 퇴각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산>과 <들>의 주인공은 인간 사회에서의 삶을 끝낸 시점에서 자연을 선택한다. 나아가, <산>의 중실은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리의 살림이라는 것이 더한층 어수선하게 여겨질 뿐”(349쪽)이다. <들>의 ‘나’는 “사람의 사회”(24쪽)에서는 공포를 느끼는데 반해 들에서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인간 사회와 대립된 자연은 중실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공간이다. 중실은 머슴살던 집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없자 “제일 친한 곳”(346쪽)인 산으로 들어간다. 그 후 그는 “산에 들어오기를 잘했다고”(345쪽) 생각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들>의 ‘나’는 도회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 “첫걸음으로”(11쪽) 들을 찾는다.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곧 산천을 사랑하고 별판을 반가워하는 심정”(11쪽)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고향이란 일가집이나 동무집이 아니라 들과 시냇물을 의미한다. 중실과 ‘나’는 자연으로 쫓겨온 것이 아니라 “식과 색”이 용납되고 묵인되는 자연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로 볼 때, <산>과 <들>의 자연은 “식과 색”의 자유로운 향유가 허락된 공간, 인간 사회와 단절되고 대립된 공간이다.⁹⁾ 중실과 ‘나’는 인간 사회를 떠나 자발적으로 자연을 선택하여 자연과 합일된 인물이다.

8) <프렐류드>, 216쪽. “식과 색”은 <프렐류드>에서 사적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9) 이효석의 자연은, 자연에서 도의와 규범성을 배워 욕망을 규제하려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자연과는 다르다.(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대출판부, 1977, 56-59쪽)

2. 연결의 공간-추방의 공간

그러나 <山>과 <들>의 자연은 이와는 정반대의 성격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다.

중실은 머슴산 지 칠팔 년에 아무것도 권 것 없이 맨주먹으로 살던 집을 쫓겨났다. (중략) 장가들이고 집 사고 살림을 내준다면 것도 헛소리였다. (중략) 그 넓은 세상(산-인용자 주)은 사람을 배반할 것 같지는 않았다.<山>, 345-346쪽)

동무들과 골방에서 만나고 눈을 기여 거리를 돌아치다 붙들리고 뛰다 잡히고 쫓기고—하였을 때의 열정이나 지금에 들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일반이다. 지금의 이 기쁨은 그때의 그 기쁨과도 흡사한 것이다.<들>, 9-10쪽)

다만 한 가지 그리운 것이 있었다. 짠맛—소금이었다. 사람은 그림자 없으나 소금이 그리웠다. (중략) 나무 판 돈으로 중실은 감자말과 좁쌀피와 소금과 냄비를 샀다.<山>, 347-348쪽)

한 가지 욕심이 솟아올랐다. / 밥짓는 일이란 머슴의 할 일이 못된다. 사내자식은 역시 밭 갈고 나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가를 들려면 이웃집 용녀만한 색시는 없다. 용녀를 데려다 밥 일을 맡길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중략) 용녀가 만약 말을 안 들으면 밤중에 내려가 가만히 엮어올걸. 한번 산에만 들어오면 별수 없지—<山>, 349-350쪽)

『생각하면 득추와 파혼된 후로부터는 달뜬 마음이 허랑해진 모양이네. 일종의 자포자기야. 죽일 놈은 득추지. 옥분의 형편이 가엾기는 해.』 / 나에게 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 올랐다. 문수에게 대하여 노염과 질투를 느끼는 대신에—도리어 일종의 안심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었다. 괴롭던 책임이 모면된 것 같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이도 감정이 가벼워지고 영겼던 마음이 풀리는 것이다.<들>, 22쪽)

자연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첫 번째 인용문들에서 보듯 끊임없이 인간 사회와 비교되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즉, 자연은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대조되는 상대적인 공간이다. <山>의 김영감은 머슴인 중실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과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김영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첩의 외도를 중실의 소행으로 몰아 그를 내쫓는다. 중실은 인간 사회를 배반의 공간으로 규정하고는 배반이 없는 공간을 찾아 산으로 들어간다. 인간 사회는 “식과 색”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반해 산은 “식과 색”을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틀림없이 보장하는 공간이다. 산은 인간 사회의 부정적 성격으로 인해 “넓은 세상”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획득한다.

또한, <山>은 인간과의 비교에 의지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아무리 단장한대야 사람의 살결이” 자작나무보다 흰 수 없다고 묘사하며, “수북 들 어선 나무는 마을의 인총보다도 많고 사람의 성보다도 종자가 흔하다”(343쪽)고 설명한다. 그리고 산의 향기는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기”(71쪽)라고 설명한다. <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도회지에서의 삶과 들에서의 삶을 각각 “동물적 열정”과 “식물적 열정”으로 대립시키면서도, “식물적 열정”에 대한 설명은 철저히 “동물적 열정”에 기대고 있다. “식물적 열정”·“들을 사랑하는 줄부”의 가치는 그 자체로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동물적 열정”·“신념에 목숨을 바치는 영웅”(10쪽)과의 동일시를 통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부정적 의미(배반의 공간)를 강조함으로써 혹은 긍정적 가치를 차용함으로써, <山>과 <들>의 자연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¹⁰⁾

<山>과 <들>의 자연은 중실과 ‘내’가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실과 ‘나’는 마을과 도시에서 일정한 목적을 지닌 채 생활한다. 그러나, 목적 달성에 실패한 후 자연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쫓김’ 즉 일종의 추방으로 표현되고 있다. 중실은 “맨주먹으로 살던 집을 쫓겨”난 후 “넓은 하늘밑에서도 갈 곳이 없”(346쪽)자 산으로 들어가며, ‘나’는 “학교를 쫓기고 서울을 물러오게 된”(9쪽) 후 자연을 다시 찾게 된다. 중실과 ‘나’는 자연을 선택하기에 앞서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당한다.¹¹⁾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자연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인간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 추방은 원래의 공

10) <山>에 비해 <들>에서, 인물과 자연의 조화가 많이 파괴된 듯 보이는(장윤수, 앞의 논문, 65쪽) 이유는, <들>의 주인공이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물과 자연의 조화를 이효석 문학의 본령으로 여기는 태도(장윤수, 위의 논문, 65쪽)는 <메밀꽃 필 무렵>의 성과에 집착한 결과로 지나치게 작의적이고 재단적인 태도이다.

11) <수탉>에서도 남주인공은 무기정확이라는 형태로 학교로부터 추방당한다. <산>과 <들>은 <수탉>의 추방이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 즉 인간 사회와의 연관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¹²⁾

인간 사회와 자연의 연관성은 인간 사회의 위력과 자연의 불완벽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자연은 중실과 ‘나’에게 “식과 색”을 제공하지만, 두 번째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듯 자연이 제공한 “식과 색”은 완벽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인간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산은 중실에게 꿀과 노루라는 양식을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금, 감자말, 좁쌀되, 냄비 같이 부족한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 제공받아야 한다. 그것은 곧 중실이 인간 사회와 완전하게 단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중실이 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의 경우보다 더 철저히 인간 사회에 의존해야 한다. 자연은 중실과 용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¹³⁾ 중실은 용녀를 인간 사회에서 구해와야 한다. <산>의 중실은 “식과 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 부분 혹은 전적으로 인간 사회에 의존한다.

<들>의 자연 또한 인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나’와 옥분은 버드나무 숲에서 문수와 옥분은 풀밭에서 정사를 나눈다. 이런 불륜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들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의 문수의 발언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 옥분은 득추와 혼약했지만, 득추는 “옥분의 가세가 빈한하여 들고날 판이므로 혼인한 뒤에 닥쳐올 여러 가지 귀치않은 거래를 염려하여 파혼한” 뒤 “다른 감을”(13쪽) 구하였다. 문수는, 옥분이 ‘나’와 문수 자신과 각각 정사를 나눈 이유를 파혼 뒤의 “자포자기”로 설명한다. <산>의 중실이 인간 사회의 “배반”(〈산〉, 73쪽) 때문에 산으로 쫓겨났듯, 옥분과 ‘나’ 그리고 옥분과 문수의 정사 또한 파혼의 파장 즉 인간 사회의 “배반”(〈들〉, 14쪽) 때문이다. 인간 사회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 인용문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노래가 진하면 번갈아 서서 연설을 하였다. 눈앞에 수많은 대중을 가상하고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어 본다. 바닷물이 수물거리나 어쩌나 새들이 놀라서 떨어지나 어쩌나를 시험하려는 듯이도 높게 고향쳐본다. (...) 협착한

12) 에드워드 W. 사이드(전신옥·서봉섭 옮김),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窓, 1996, 94-100쪽. <수탉>의 을손도 학교로 돌아가고자 한다.

13) 김해옥, 『이효석 단편소설의 서정적 특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0, 37쪽.

땅 위에 그렇게 자유로운 벌판이 있음이 새삼스러운 놀람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말을 외쳐도 거기에서만은 『중지』를 당하는 법이 없으니까 말이다.<들>, 15쪽)

문수는 기어코 학교를 쫓겨났다. 기한 없는 정학 처분이었으나 영영 물려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덕분에 나도 빌려주었던 책권을 영영 뺏긴 셈이 되었다. (중략) 별수없이 나날을 들과 벗하게 되었다. 나는 좋은 들의 동무를 얻은 셈이다.<들>, 20쪽)

공포는 왔다. / 그것은 들에서 온 것이 아니요, 마을에서—사람에게서 왔다. / 공포를 만드는 것은 자연이 아니요 사람의 사회인 듯싶다. / 문수가 돌연히 끌려간 것이다. (중략)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여름의 계획도 세웠으나 혼자서는 하릴없다. 가졌던 동무를 잃었을 때의 고독이란 큰 것이다. / 들에서 무료로 지내는 날이 많다.<들>, 24-25쪽)

문수는 ‘내’가 “걸은 길대로”(15쪽) 똑같이 걷고 있기에, 문수를 살펴보는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문수에게 “몇권의 책”을 빌려주는데, 문수는 그 책을 학교에서 읽다가 발각되어 빼앗길 뻔한다. ‘내’가 문수에게 빌려준 책은 인간 사회에서는 금서이다. 인간 사회는, 책의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책을 읽는 것까지도 “중지”시킨다. 문수가 계속 금서를 읽자 인간 사회는 그를 들로 추방한다. “차라리 시원하다고 문수는 거드름 부”(20쪽)리지만,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 나와 “별수없이” 들에 정착하게 된다. 즉 들은 추방지, 유배지이다.

들은 인간 사회와 단절된 공간이기도 하기에 금기나 발언의 중지는 없다. 모든 것이 허용되며 허락되는 공간인 듯 보인다. 그러나 들은 인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 아니어서 인간 사회에서의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문수는 금기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들로 추방당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인간 사회에서 닦쳐온 공포는 들을 침범하여 문수와 나를 끌고 가며 들의 성격 또한 바꾸어 버린다. 문수가 끌려간 후 들은 더 이상 아름답고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무료한 공간이 되어 버린다. 들은 인간 사회와 완벽히 단절된 공간¹⁴⁾이나 순수·원시주의의 공간¹⁵⁾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의해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제

14) 나병철, 『이효석의 서정소설 연구』, 『연세 어문학』, 1999, 348-353쪽; 홍재범, 『이효석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41-44쪽.

어되고 결정되는 공간이다.

<山>의 중실과 <들>의 ‘내’가 자연을 인간 사회와 단절된 공간으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인간 사회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인간 사회에 의해 제압되는 이유는, 이들이 자연과 완전히 합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여전히 인간 사회 질서관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중실이 용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밥짓는 일이란 머슴의 할 일이 못된다”면서 자신의 신분을 여전히 머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머슴이란 인간 사회에서의 계급일 뿐 자연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인간 사회의 계급 구조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인간 사회의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나’는 개들의 교합을 보고는 부끄러워하며, 옥분과의 정사를 “흠뻑 즐기”(13쪽)지 못하고 “책임 문제”(19쪽)로 괴로워하고, 옥분을 포함해 세 명이 같이 들에서 밤을 지새자는 문수의 제안을 “야성이 철저치 못한 까닭”(23쪽)에 거절한다. ‘나’는 들에 거주하면서도 들의 자유로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인간 사회의 질서관과 금기의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중실과 ‘나’는 인간 사회에서 들로 ‘추방당한’ 인간들, 즉 인간 사회에 반쯤은 소속되고 반쯤은 격리되어 있기에 인간 사회로 되돌아갈 수도 없으며 자연과 일치할 수도 없는 존재들¹⁷⁾이다.¹⁸⁾

결국, <山>과 <들>에 나타난 자연은 이중의 성격을 지닌다. 인간 사회와 단절되어 있기에 “식과 색”의 향유가 자유롭고 금기가 없는 공간이라는 성격,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존재가 머무는 공간 즉, 인간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간이라는 모순된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5) 전해자, 『한국근대문학의 쟁점』, 정문연, 1982, 112-113쪽.

16) 중실은 성에 대한 욕망을 인간 사회의 계급의식으로 위장하고 있다.

17) 에드워드 W. 사이드(전신욱·서봉섭 옮김), 앞의 책, 94-100쪽.

18) 이상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이라는 개념(백지혜,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1-13쪽)은, 이효석 문학의 편력을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이효석 문학의 기저가 될 수는 없다. 여행의 개념을 도입할 때 이효석 소설의 주인공들이 떠나는 이유(백지혜, 위의 논문, 22쪽)를 찾을 수 없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Ⅲ. 이중적 성격의 의미

1. 前史로서의 <수탉>, <獨白>

이효석의 자연이 지닌 이중적 성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류드>, <오리온과 林檎>, <수탉>, <獨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맑시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은 <프레류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식과 색”에 대한 사적 욕망을 맑시즘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 뒤에 은폐하려 한다.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적 욕망과 시대적 소명의식은 분열과 대립을 모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은 <北國私信>에서 보여주었던 두 요소의 완벽한 통합을 와해시키면서 두 요소의 대립 관계를 형성할 단초를 마련한다. <오리온과 林檎>은 두 요소의 대립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그 자신을 캄프라치하고 그의 체면을 보존”하기 위한 “방패”(<오리온과 林檎>, 261쪽)로 규정한다. “식과 색”에 대한 사적 욕망은 시대적 소명의식이라는 방패로 인해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적 욕망이라고 주장한다.¹⁹⁾

<수탉>과 <獨白>은 사적 욕망이 좌절된 이유를 밝히는데 바쳐져 있다. <수탉>의 공간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규율과 금기의 학교 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식과 색”을 약속한 복녀가 존재하는 곳, 즉 학교 밖이다. 주인공 을손은 학교의 규율과 금기를 위반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지만, 복녀는 을손의 금기 위반 행위를 보고는 그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식과 색”의 추구가 자유로와 보였던 학교 밖은, 학교 안의 규율과 금기 사항을 준수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학교의 권력과 위력에 지배받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탉>에서는 금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금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獨白>에서 드러난다. <獨白>은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아내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일종의 고백체 소설이다. 남편이 3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남편의 육체에 대한 열정”(<獨白>, 170쪽) 즉

19) 이에 대해서는 조명기, 『이효석 소설의 변화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2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를 참고할 것.

성에 대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소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성에 대한 욕망이며 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남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남편이 3년 전 “어색한 투박을 입은 영웅이 되어” “수군거리고 돌아다”(172쪽)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편의 맑시즘 전력이 아내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내는 성에 대한 욕망을 “원시의 욕망”(171쪽)·“거짓없는 마음”·“진실”(172쪽)로 설명하고, 맑시즘을 “면”(171쪽)·“거짓”으로 규정한다. 맑시즘이라는 당대 지식인의 주류적 사조를 남편이 한때 호흡했던 까닭에 색에 대한 아내의 욕망은 좌절된 상태이며, 아내의 독백은 자신의 욕망을 좌절시킨 맑시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목적으로 한다. <獨白>은 <수탑>에서 거론한 금기가 지식인의 시대적 소명의식·맑시즘임을 밝히고 있다.

<北國私信>과 <프레류드>가 금기의 위반을 기록한 것이라면, <오리온과 林檎>에서 <獨白>에 이르는 소설들은 금기를 위반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北國私信>에서 <獨白>에 이르는 일련의 소설들은 맑시즘이라는 금기 영역에 대한 반응의 편편들이다. 이효석은 맑시즘에서 인간 본능 탐구로 방향을 바꾼 것²⁰⁾이 아니라 맑시즘을 부정하고 비판하기 위해 맑시즘의 대립 개념으로 “식과 색”이라는 인간 본능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로 볼 때 맑시즘 전력 혹은 그의 초기작들은 이효석에게 있어 원죄와도 같은 것이다. 그의 원죄의식은 <오리온과 林檎>과 <수탑>에서 이브의 사과로 형상화될 정도로 뿌리 깊은 것이다. 이효석은 사과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원죄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자연의 위치와 의미

<수탑>과 <獨白>을 통해 볼 때 원죄에 대한 이효석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원죄를 사죄하기 위한 자기 반성인데, 맑시즘의 부정과 비판이 그것이다. “식과 색”을 절대적 가치로 삼을 때 “식과 색”의 소외를 초래하는 맑시즘은 금기로 간주되며 그 의의 또한 부정된다. <수탑>과 <獨白>은 이효석이 맑시

20) 김윤식·정호웅 공저, 『韓國小說史』, 예하, 1993, 249-250쪽.

즘의 부정을 논리화하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식과 색”이라는 인간 본능과 당위적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킴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포기하는 자신을 합리화·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원죄에 대해 이효석이 보이는 또 하나의 태도는 맑시즘을 부정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었던 맑시즘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豚>, <수탉>과 같은 우회로를 거친 후에야 <獨白>과 같은 소설을 발표할 수 있었다. <獨白>에서 맑시즘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명시적으로 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기를 위반하면 “식과 색”에 대한 희망은 전무하다는 정치적 작업을 <豚>과 <수탉>에서 해 놓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효석은 <北國私信>, <프레류드>, <오리온과 林檎>에서와는 달리 <豚>, <수탉>, <獨白>에서는 맑시즘을 비판할 능력이 없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맑시즘의 가치나 의의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맑시즘을 부정하는 이유는 맑시즘 자체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이 아니라 맑시즘을 금기로 간주하고 금기 위반을 생물적 생명의 위협으로 처벌하는 당대의 위력 때문인 것이다. 둘째, 맑시즘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당대의 질서에 성공적으로 재편입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효석은 <獨白> 이후의 소설들에서 금기의 준수를 강조하는 소설들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山>이나 <들>은 금기의 준수를 강조하는 데만 바쳐진 소설들이 아니다. <山>과 <들>에서의 자연은 금기의 준수를 엄격히 강조하는 인간 사회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성격 또한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효석이 지닌 원죄의식이란, 자신의 문학적 출발이 맑시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맑시즘 부정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자괴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²¹⁾

<山>, <들>에서 이효석이 보여준 원죄의식은 <豚>, <수탉>, <獨白>에서의 그것을 확대·변형한 것이다. <수탉>의 학교 안(금기의 공간)↔학교 밖(금기

21) 지식인은, 자기 내부와 사회 속에서 구체적 진실에 대한 탐구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며(사르트르(조영훈 옮김), 『지식인을 위한 변명』, 한마당, 1999, 46-47쪽), 명(이념, 대타적 관심과 봉사정신)과 분(삶, 자기 유지의 생존욕구) 사이의 위화를 가장 실감나게 포착할 줄 아는 존재이다(조남현, 『일제하의 지식인 문학』, 평민사, 1978, 55쪽).

를 벗어난 공간)의 공간 대립은 <山>과 <들>에서 인간 사회↔자연의 대립으로 확대되면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두 소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탉>의 대립 구조는, “식과 색”은 금기의 준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립 구조, 즉 일종의 시험·유혹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山>과 <들>의 자연은 “식과 색”에 대한 욕망과 탐시즘에 대한 신념 표출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이다. 이제 “식과 색”과 탐시즘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금기의 요소들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山>과 <들>에서 “식과 색”은 이념으로부터의 퇴각을 위한 구실²²⁾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탐시즘과 인간 본능을 <山>과 <들>에서 결합시킨 이유는 각각의 단점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두 요소가 자연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결합되면서 두 요소의 결합 즉 탐시즘의 이데올로기성과 인간 본능 탐구의 현실 도피적 성향은 희석된다. 인간 본능 탐구는 탐시즘의 힘을 빌림으로써, 잘못된 금기로 가득 찬 시대 현실에 저항하는 도구적 성격을 획득한다. 반면 탐시즘은 인간 본능 탐구로 인해, 과도한 이데올로기성에서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효석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대립을 인간 사회와 자연의 대립으로 변형시킨 이유는, 탐시즘과 인간 본능 탐구의 공존을 위해서였다.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 이효석은 자신의 초기작을 이끌었던 탐시즘에서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탐시즘을 부정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자괴감에서도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인은 지배자와 동맹을 맺거나 약한 자의 편에 서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만,²³⁾ 이효석은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이란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의 자연은 이중적 원죄의식을 무마하여 생활인으로서의 이효석과 지식인으로서의 이효석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타협의 공간인 셈이다.²⁴⁾

22) 이상욱, 앞의 책, 65-66쪽.

23) 에드워드 W. 사이드(전신욱·서봉섭 옮김), 앞의 책, 73-77쪽.

24) 이효석의 자연은 이국, 도시, 조선적인 것 등의 다시 변형·확대된다(홍재범, 앞의 논문, 51쪽). 이런 의미에서 “李孝石의 西歐指向은 (중략) 自己確認을 위해서 異國을 遍歷하는 것이 아니라 20년대 集團意識에 대한 對抗의 概念으로써 美意識에 입각한 個人意識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는 주장(박중신, 『30年代 作家의 現實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6, 36쪽)은 반만 진실이다.

두 소설에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자의식을 보호하려는 지식인의 욕망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 요소의 균형 상태를 갈망하는 이효석의 태도가 자연이라는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효석의 자연은 불안한데, 두 요소의 균형·긴장 상태는 힘의 논리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강하고 약하고 이기고 지고—이 두 길뿐. 지극히 간단하다. 강약이 부동으로 역센 장골 앞에서는 약질은 욕을 보고 그자리에 폭삭 쓰러져 버리는 이 일장의 싸움 속에서 우연히 시대를 들여다본 듯하여서 너무도 짙은 암시에 현보는 마음이 얼떨떨하였다. 흡사 그 약질같이 자기도 호되게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듯한 한 실감이 전신을 저리게 흘렀다.<薔薇 病들다>, 177쪽)

「세상에서 제일 장하고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바른 것이 무엇이나?」 / 되건말건 수수께끼를 걸고, / 「힘이다!」 / (중략) 힘! 무슨 힘이든지 좋다.<들>, 21쪽)

<들>보다 약 2년 후에 발표된 <薔薇 病들다>에서는 <들>에 비해 더욱 강력한 위계질서가 그려지고 있다. “강하고 약하고 이기고 지고—이 두 길뿐. 지극히 간단”하기에, 힘의 균형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인간 사회는 강자이며 지식인의 자의식은 약질이기에 인간 사회는 “티끌만큼의 영향도 받”(<薔薇 病들다>, 176쪽)지 않고 힘의 균형 상태를 쉽게 붕괴시킨다. 그런데, <들>의 ‘나’와 문수는 들에서 씨름을 하면서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山>, <들>의 이효석은 힘의 질서, 인간 사회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효석의 자의식은 인간 사회에 의해 쉽게 침범당하고 인간 사회의 질서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두 힘의 균형 상태를 기반으로 한 그의 자연은 곧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불안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IV. 결론

본고는 이효석의 <山>과 <들>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를 전후(前後) 소설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山>과 <들>에 나타난 자연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인간 사회와 단절되고 대립된 공간으로, 인간 사회는 온갖 규율과 금기로 가득 차 있는데 반해 자연은 인간 사회의 온갖 금기에서 벗어나 “식과 색”의 자유로운 향유가 허락된 공간이다. <山>과 <들>의 주인공인 중실과 ‘나’는 인간 사회를 떠나 자발적으로 자연을 선택하여 자연과 합일된 인물이다. 동시에, <山>과 <들>의 자연은 인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식과 색”을 인간 사회에 의존하며 인간 사회에 의해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결정되는 공간이다. 중실과 ‘나’는 인간 사회의 질서관과 금기의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추방자들이기 때문이다. <山>과 <들>에 나타난 자연은, 인간 사회와 대립되고 단절된 공간이라는 성격과 함께, 인간 사회에 의해 지탱되고 또 그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간이라는 모순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山>과 <들>에서 나타난 자연의 성격은 이전의 소설인 <수탉>, <獨白>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수탉>은 금기와 규율을 강조하는 공간(학교 안)↔“식과 색”을 약속하는 공간(학교 밖)으로 대립해 있지만, 결국 학교 밖은 일종의 허상으로 유혹이며 시험일 뿐이다. 학교 밖은 학교 안의 금기와 규율을 준수하였을 때에야 “식과 색”을 보장하는 공간이다. <獨白>은 금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獨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에 대한 욕망뿐인데, 맑시즘이라는 금기를 위반한다면 성에 대한 욕망은 완벽히 억압당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욕망이 진실이며 맑시즘은 거짓이라고 규정했을 때, <獨白>은 맑시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맑시즘은 이효석에게 있어 일종의 원죄와 같은 것이다. 맑시즘에 대한 원죄의식에서 이효석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맑시즘에 경도되었던 과거를 자기 반성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이효석이며, 또 하나는 맑시즘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이효석이다.

넷째, <山>과 <들>의 자연↔인간 사회의 대립은 이전 소설의 중심축인 학교 안↔학교 밖의 대립을 확대·변형한 것이다. <獨白>에서 이효석은 맑시즘↔성이라는 대립 구조를 만들어내지만, <山>과 <들>의 이효석은 맑시즘과 “식과 색”을 자연의 공간에 위치시키고 있다. 맑시즘과 인간 본능을 결합시킨 이유는 맑시즘의 이데올로기성과 인간 본능 탐구의 현실 도피적 성향은 회색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山>과 <들>의 이효석은 이미 힘의 논리 즉 양육강식을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로 이해하고 있기에, 지식인의 시대적 소명의식과 “식과 색”에 향한 사적 욕망의 불안한 균형 상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로 볼 때, <山>과 <들>의 자연은 현실적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생활인으로서의 이효석과 자신의 자의식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지식인으로서의 이효석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타협의 공간, 전략적 공간이다.

주제어 : 자연, 인간 사회, 금기, 추방, 원죄, 자의식

참고문헌

- 김우중, 『韓國現代小說史』, 성문각, 1989, 251쪽.
- 김윤식·정호웅 공저, 『韓國小說史』, 예하, 1993, 249-250쪽.
- 김해옥, 『이효석 단편소설의 서정적 특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0, 37쪽.
- 나병철, 『이효석의 서정소설 연구』, 『연세 어문학』, 1999, 348-353쪽.
- 박중신, 『30年代 作家의 現實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6, 36쪽.
- 박진숙, 『1930년대 한국동반자문학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33-37쪽.
- 백지혜,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1-13쪽, 22쪽.
-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문학연구』, 일지사, 1988, 81쪽.
- 유진오, 『作家 李孝石論』, 『국민문학』 7월호, 1942, 17쪽.
- 이나미, 『이효석전집』 1권, 찬미사, 1983.
- 이상옥, 『이효석』, 건국대 출판부, 1997, 21쪽, 65-66쪽.
- 장운수, 『兪鎭午와 李孝石 小說에 나타난 現實認識』, 고려대 석사논문, 1982, 60쪽, 65쪽.
- 전혜자, 『한국근대문학의 쟁점』, 정문연, 1982, 112-113쪽.
- 정명환, 『한국작가의 지성』, 문학과지성사, 1978, 74쪽.
- 조남현, 『일제하의 지식인 문학』, 평민사, 1978, 55쪽.
- 조명기, 『金講師와 T教授』에 내재된 지식인의 욕망 연구, 『어문학』 83집, 어문학회, 2004.
- 조명기, 『이효석 소설의 변화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2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조명기, 『지식인의 위상과 현실 대응 전략』, 『현대소설연구』 1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조명기, 『1930년대 말 지식인의 현실 적응 양상 연구-채만식의 『少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5집, 한국문학회, 2003.
- 최진원, 『國文學과 自然』, 성대출판부, 1977, 65-69쪽.
- 홍재범, 『이효석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41-44쪽, 51쪽.

사르트르(조영훈 옮김), 『지식인을 위한 변명』, 한마당, 1999, 46-47쪽.

에드워드 W. 사이드(전신욱·서봉섭 옮김),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썬, 1996,
73-77쪽, 94-100쪽.

<Abstract>

A Character of the Natural in the Lee,
Hyo-suk's *A Mountain*(山) and *A Flats*(들)

Cho, Myung-Ki

This paper is aim to find the meaning of the natural in the *A Mountain* (山) and the *A Flats*(들).

First, the natural in the *A Mountain* and *A Flats* has the double characters. The human society is filled with every kind of rules and taboo, but the natural is a free space out of human's taboo and a permitted space of the free enjoyment about the "food and sex." Also, the natural in the *A Mountain* and *A Flats* is not a space cut off with the human society, but a space "food and sex" to depend on the human society and encroached upon by the human society.

Second, the character in the *A Mountain* and *A Flats* is cleared, when we research the before novels *A Cock*(수탉) and *A Soliloquy*(獨白). The spaces of the *A Cock* is stand face to face a space observe the rules and taboo in(school inside)↔a space promise for "food and sex" in(school outside). A theme in the *A Soliloquy* is a desire of the sex only. If the people turn away from taboo of the Maxism, the desire of the sex is repressed perfectly.

Third, Lee asserts it that when we turn away from taboo we is out of favor with sex in *A Soliloquy*, but at *A Mountain* and *A Flats* Lee set down the Maxism and the "food and sex" in the natural altogether. Although Two elements is consolidated, ideology in the Maxism and the reality avoid character in the human instinct investigation are diluted.

Key Words : natural, human society, taboo, expulsion, original sin,
self-consciousness